

행기를 타는 순간까지도 나에게 일어난 일을 실감하기 어려웠다. 파리에서 3시간 정도를 동쪽으로, 그러니까 아시아 방향으로 날아서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도착한 시간이 이스탄불 현지시각으로 밤 10시가 넘었기에 이스탄불의 아름다운 야경을 비행기 안에서 감상할 수 있었다. 첫날밤에는 잠을 실쳤다. 이른 아침에 스피커를 통해서 이슬람 교회에서 기도를 드리는 목소리가 이스탄불의 아침을 깨웠다. 커튼을 걷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하늘에 걸려있는 구름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자주 모든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한다. '왜 너는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이유를 굳이 알 필요는 물론 없을지도 모른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에게 대부분의 아름다운 것들은 어떤 경계선 위에서 있다. 이 순간에서 저 순간으로, 이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경계선 위에서 아름다움들은 반짝인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햇살로 인해 드리워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붉은 빛은 조만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 신선한 해석과 기교 빛난 무대

11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는 콩쿠르의 첫 예선이 진행되었다. CD와 DVD심사를 거쳐 선발된 35명의 참가자들이 바흐·스카를라티·쇼팽 연습곡·현대 작곡가 연습곡·7분 정도의 자유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연주했다. 아주 고전적인 프로그램 구성이지만 예선 프로그램 연주만으로 연주자의 음악성이나 역량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스테판 블레를 심사위원장으로 한 총 7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맡았다. 프랑크 쉽이 프랑스를, 쉬에르페키넬·알리 다르마·아이체룰 사레카가 터키를, 니콜라코스시말타노스가 대표했고, 그리스를 그리고 내가 유일한 아시아 심사위원이었다. 이미 프랑스에 여러 개의 콩쿠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경험이 풍부한 스테판 블레는 아주 간단한 방식을 제안했다. 각 심사위원이 가장 낮게는 1점에서 높게는 5점까지를 주고, 7명의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더해서, 다음 단계에서 계속 연주할 피아니스트들을 선별하는 방식이었다. 콩쿠르는 예선-중간결선-결선의 3단계를 거쳤다. 최종 결선에는 6명의 피아니스트를 선별했는데, 심사위원들과 콩쿠르 측은 참가자들의 수준에 매우 만족했다. 국제 콩쿠르에 걸맞는 수준의 젊은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참가했기 때문이다.

중간결선에서는 모두 15명의 피아니스트를 선발했고, 이들은 고전 소나타 한 곡 전악장·20세기에 작곡된 소나타 한 곡, 그리고 엘킨·레치레이·사이군·마르마 등의 터키 작곡가의 작품 한 곡을 연주했다. 이스탄불 국제 피아노 콩쿠르는 터키 작곡가들의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알리는데도 기여하리라 생각된다.

결선에는 두 명의 일본 태생의 피아니스트 토모히로 하타·마도카 푸카미, 두 명의 터키 태생의 피아니스트인 부락 체비·구라이바줄, 그리



고 우크라이나 태생의 알레나 코즐라노바와 불가리 태생의 아니카 리스토바가 올랐다. 결선에 오른 6명의 피아니스트는 구라이바줄을 제외하고는 모두 프로페셔널 피아니스트로서의 경력을 쌓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었다.

공동 1위를 차지한, 우크라이나 태생의 알레나 코즐라노바와 터키 태생의 바락 부차이는 1차 예선부터 고른 연주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알레나 코즐라노바는 모든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처음부터 끌었는데, 그녀의 연주는 분명히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배워서 익힌 것을 잘 연주하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스스로 작곡을 하듯이 즉흥연주를 하듯이 연주를 했고, 더욱이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내적인 감흥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영감이나 감정이 생겨나면 위협을 감수하고 그것을 연주를 통해 표현했다. 매우 흥미로웠던 것은 콩쿠르 기간 동안 알레나 코즐라노바는 피아노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다. 콩쿠르 측은 몇 개의 피아노 연습실을 배정했는데 코즐라노바는 연습을 하지 않고, 콩쿠르 장소 부근을 어슬렁거릴 뿐이었다. 그래서 콩쿠르 진행자들은 모두들 의아하게 생각했다. 추측해 보는데 그녀는 이미 배움과 경험을 통해서 기교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고, 피아노 없이 연주를 준비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녀의 연주에는 엄청난 생기와 활력이 있었다.

현재 베를린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락 부차이는 결선에서 한 작곡가의 작품만으로, 그러니까 드뷔시의 전주곡만으로 프로그램을 짰는데 바로 녹음을 해도 좋을 정도의 기술적·예술적인 완성도를 지닌 연주를 들려주었다. 그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필요한 과장이나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연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위를 차지한 아니카 리스토바는 결선에서 리스트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과감성을 보여주었는데, 그녀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누구보다도 많이 느껴지는 피아니스트였다. 그녀의 대단히 자유로운 팔의 움직임은 때로는 과장되어 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건반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을, 기교적인 완성의 수준으로 가늠하게도 했기에 예선에서 결선을 거치는 동안에 익숙해 질 수밖에 없었다.